

◆ 흑해 함대의 모항(母港)이자 영웅도시

세바스토폴 연방시

(город федер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 Севастополь)



아이스

목 차

I 종합개관	
1. 개관	
1.1 위치	
1.2 일반개황	
2. 자연환경	
2.1 지리	
2.2 기후 및 식생	
3. 시 상징	
3.1 시 기	
3.2 시 문장	
II 상세개관	
4. 역사	
5. 정치	
5.1 행정부	
5.2 입법부	
5.3 사법부	
5.4 흑해 함대	
6. 경제	
6.1 경제 개황	
6.2 주요 산업	
7. 사회문화	
7.1 인구 및 민족 구성	
7.2 행정구역	
7.3 주요 유적지	
7.4 인물	
8. 대한 관계	
8.1 문화교류	

I. 종합개관

1. 개관

1.1. 위치

그림1. 세바스토폴 위치



출처: www.vz.com

세바스토폴은 흑해 연안의 크림 반도 내에 위치하는 항구도시이자 크림 반도 최대의 도시이다. 크림반도 및 세바스토폴은 로마-비잔틴-오스만-러시아라는 제 제국의 지배를 겪었고, 지난 2014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심각한 영토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며, 당시 크림반도와 함께 러시아연방에 귀속되면서 연방시의 자격을 획득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 사이트의 행정구역 분류에 따르면, 세바스토폴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한 지방으로 특별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¹⁾ 대다수의 국가와 유엔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세바스토폴은 러시아의 흑해함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해군 및 항구도시로서 알려져 있다. 기후는 겨울에 온화하고 여름은 온난하여 해안 휴양 도시로 잘 알려져 있으며, 해양생물학의 중요한 거점이기도 하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돌고래에 대한 연구와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²⁾

1) <https://kr.rbth.com/travel/2015/09/02/393841> (검색일: 2019.04.24)

2) <https://ko.wikipedia.org/wiki/%EC%84%B8%EB%B0%94%EC%8A%A4%ED%86%A0%ED%8F%B4> (검색일: 2019.05.11)

1.2 일반 개황³⁾

명칭	세바스토폴 (Sevastopol)
위치	크림 반도(Республика Крым)
수도	-
면적	864km ²
인구	558,163명(2020년 기준, 대구광역시 면적)
민족구성	러시아인 90,11%, 우크라이나인 5,56%, 벨라루스 0,42%(2020)
종교	러시아 정교, 이슬람교
공용어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크림타타르어
정부형태	연방시
시장	미하일 유리예비치 베테르니코브
의회	입법회의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е Собрание)
연방관구	남부 연방관구
경제관구	남부 경제관구
주요산업	조선, 항공산업, 건축자재
GRP*	3010억 루블 (2024)
1인당 GRP*	539,500 루블(2024)

세바스토폴(Sevastopol)은 크림 반도에 위치한 러시아 연방의 특별행정구역(연방시)으로, 지정학적·군사적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도시이다. 본 도시는 크림 반도의 남서부 해안에 위치하며, 흑해 함대의 주요 거점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세바스토폴의 총인구는 약 558,163명으로, 도시형 광역구역을 포함한 수치이다. 민족 구성은 러시아인이 약 90.11%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우크라이나인이 5.56%, 벨라루스인이 0.42%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민족 구성은 역사적 이주 및 정치적 통합 과정에서 형성된 결과로 해석된다.

종교적으로는 러시아 정교회가 지배적이며, 이외에도 소수의 이슬람교 신자가 존재한다. 공용어는 러시아어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어 및 크림타타르어가 병용된다.

행정적으로 세바스토폴은 입법회의(Законодательное Собрание)를 통해 자치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며, 현직 시장은 미하일 유리예비치 베테르니코브이다. 세바스토폴은 남부 연방관구 및 남부 경제관구에 속하며, 이중적 관할 체계 아래 국가 정책과 지역개발이 병행되고 있다.

경제 측면에서, 세바스토폴은 조선업, 항공산업, 건축자재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P)은 약 3,010억 루블에 달한다. 1인당 GRP는 539,500 루블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러시아 내 다른 연방시들과 비교할 때 중간 수준의 경제력을 시

3)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2018, 272 p, 12.22 валовой региональный продукт по субъекта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6

사한다.

결론적으로, 세바스토폴은 군사적·경제적·문화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지역으로서, 향후 동유럽 및 흑해 연안 지역의 정세에 영향을 미칠 잠재적 핵심지로 평가된다.

2. 자연환경⁴⁾

2.1 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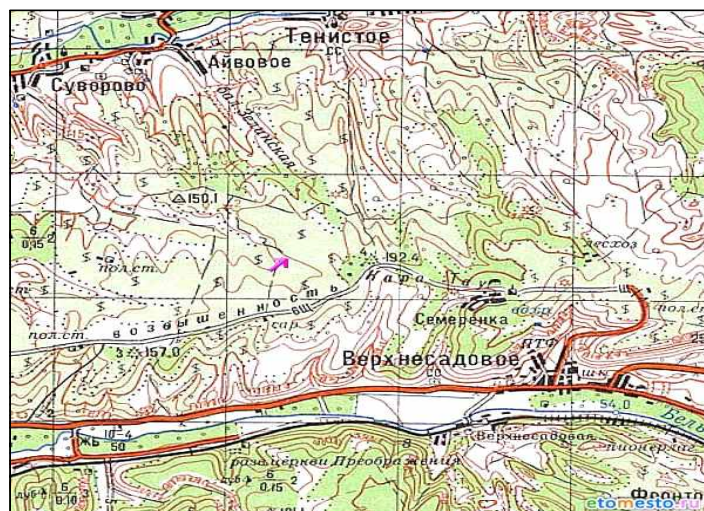
그림 2. 세바스토폴 위치



출처:<http://sevastop.ru>

세바스토폴은 크림 반도 남서부 지역에 위치해있다. 동쪽에는 반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크림 공화국이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의 서쪽과 남쪽은 흑해를 마주하고 있다. 도시의 생활권은 세바스토폴 만(Севастопольская бухта)을 끼고 있는 헤라클레스 반도(Геракл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우크라이나어(Гераклі́йський півострів)에 형성되었다. 한편, 도시는 발라클라바 언덕(Балаклавские Высоты) 등 크림반도의 주요 산지가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림 3. 카라타우 고지



4) <http://www.vse-strani-mira.ru/place-of-rest/225-rest-in-ukraine/992-sevastopol.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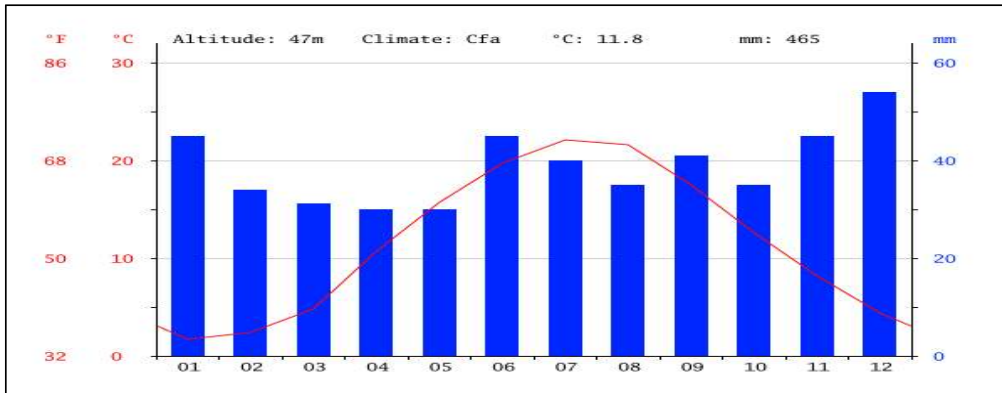
출처: <http://www.etomesto.ru>

크림타타르어로 "언덕"을 의미하는 크림(Qırım, кырым)에서 유래한 지명답게, 세바스토폴 지역에 뻗어있는 산맥은 크게 3곳으로 나뉜다. 앞서 언급한 발라클라바 언덕이외에도, 맥켄지 산맥(Мекензиевы горы, 크림타타르어 콕-아가치Кок-Агъач, 직역하면 '푸른 나무')이 도시 권역 내부 동쪽에 위치해 있고, 도시외부의 남쪽에는 카라타우(Кара-тау)고지가 위치해 있다. 그러나 산지는 크게 가파르지 않은 편이라 농업에 불리하지는 않은 편이다.

세바스토폴을 흐르는 주요 하천은 초르나야 강(Чёрная. 우크라이나어 초르나Чорна, 크림타타르어 초르구나Чоргъуна 또는 카즈클르-외첸Къазкъылы-Озен)으로, 반도 남서부에서 발원하여 흑해로 흘러들어간다. 그 외에도 벨벡(Бельбек) 강, 카차(Кача. 크림타타르어 카츠Къачы) 강이 세바스토폴 도시권을 지나가고 있다. 강의 대부분은 남부 크림 산맥에서 발원하고, 하천의 길이가 평균 60km 대로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위 세 하천은 도시의 젖줄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세바스토폴은 4개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졌고, 해안선의 총 길이는 152km이다. 동부지역은 농업 생산, 남부 및 북서부는 관광 및 휴양지로 유명하다.

그림 4. 연중 강수량



출처: <http://ru.climate-data.org>

2.2 기후

흑해의 영향을 받아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의 특징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따듯한 기온과 대체적으로 고른 강수량을 보인다. 1월 평균 기온은 +5.9°C 이며, 7월 평균기온은 26.5°C이다. 연중 강수량은 465mm이다.

표 1. 세바스토폴 월별 평균 최저/최고 기온

Климат Севастополя													
Показатель	Янв.	Фев.	Март	Апр.	Май	Июнь	Июль	Авг.	Сен.	Окт.	Нояб.	Дек.	Год
Средний максимум, °C	5,9	6,0	8,9	13,6	19,2	23,5	26,5	26,3	22,4	17,8	12,3	8,1	15,9
Средний минимум, °C	-0,2	-0,4	2,0	6,1	11,1	15,5	18,2	17,9	13,9	9,9	5,4	2,0	8,5

출처: new-sebastopol.com

2.3. 자원현황

2.3.1 지하자원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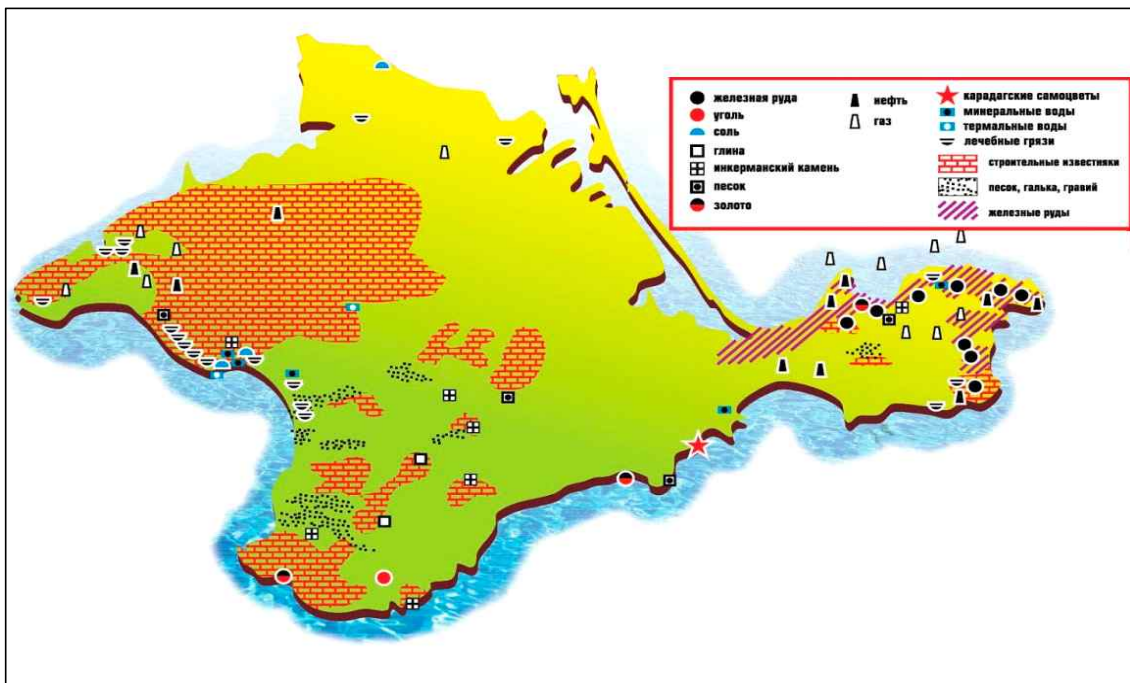
세바스토폴을 비롯한 크림 반도 지역은 대체적으로 지하자원의 산출량이 많은 지역이 아니다. 특히 석탄 등의 화석연료 및 야금제련 기술을 필요로 하는 비철금속 등도 소규모 매장되어 있다. 석유와 가스 역시 동부 케르치 해협 방면과 서부 지역 일부 소규모로 편중되어 있다. 토목 및 건축에 필요한 골재 등이 주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흑해에 면한 세바스토폴 만(Севастопольская бухта)에서는 모래, 자갈, 조약돌 및 구름돌이 채취된다. 태고적 화산재로부터 만들어진 벤토나이트를 비롯하여 석면, 도자기의 원료가 되는 고령토 등 다양한 점토들이 산출된다. 이 점토들은 불과 산성에 강하며, 주로 광택제나 제련 및 염료,

5) <http://sev.gov.ru/government/podrazdeleniya/seprirodnadzor/mineral/>

니스 생산에 주로 사용된다.

이외에도 석회석 또한 많이 채취되고 있다. 석회석은 시멘트의 주원료가 되며, 이외에도 모래와 함께 유리 제조, 그리고 가축 사료에 필요한 칼슘 첨가물로 사용되기도 한다. 나아가 최근 셀룰로오스를 활용한 제지 산업에도 이 석회석이 이용된다. 최근 나노 셀룰로오스 섬유를 활용한 제지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⁶⁾, 세바스토폴 석회석의 역할은 주목받고 있다. 이외에도 석회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인회암, 그리고 모래에서 사금을 채취하는 행위도 성행하고 있다.

그림 6 세바스토폴 및 크림 반도 전체 매장 자원



출처: <http://www.zalita.ru>

6) 나노 셀룰로오스 섬유를 이용하여 종이를 생산하면, 인장 강도가 알루미늄의 4배, 금의 2배에 달한다고 한다. 최근 국내 연구진에 의해 셀룰로오스를 활용한 제지 섬유 개발에 성공하였다. (출처: <http://www.sciencetimes.co.kr/?news=%EA%B8%88%EC%86%8D%EB%B3%B4%EB%8B%A4-%EC%A7%88%EA%B8%B4-%EC%8A%88%ED%8D%BC-%EB%82%98%EB%85%B8%EC%A2%85%EC%9D%B4-%EC%83%81>, 검색일자: 2016. 5.23)

2.3.2. 어족자원⁷⁾

세바스토폴 만을 기점으로 도시의 연안어업이 크게 성행하고 있다. 특히 지중해의 난류가 차가운 흑해와 만나면서 난류성 어족과 한류성 어족 등이 골고루 서식하고 있다. 2015년 1월 크림 연방관구 전체 어획량이 23,588 톤이었는데, 이 중 76.5%인 18,344 톤이 세바스토폴에서 잡힌 것이다.

표 2. 세바스토폴 연안 지역 주요 어종⁸⁾

사진	이름(러시아어/학명)	한류/난류성
	청어 (Селёдка / Clupea)	한류성
	전갱이 (Ставрида / Carangidae)	난류성
	볼락 (Морской Окунь / Sebastes)	한류성
	망둥어 (Бычок / Gobiidae)	난류성
	참송어 (Пиленгас / Liza haematocheilus)	난류성
	포마토무스(고등어목) (Луфарь / Pomatomus saltatrix)	난류성

7) <http://sevribalka.com/>

8) 사진출처: <http://www.rybalka.ru>

3. 시(市) 상징

3.1 시 문장⁹⁾

그림 13 세바스토폴 시 문장(출처: sev.gov.ru)



세바스토폴의 시 문장은 2000년 4월 21일 채택되었다. 방패 모양의 바탕은 8:9 비율이다. 바탕의 배경색은 대각선을 기점으로 왼쪽의 푸른색과 오른쪽의 흰색으로 구분되어 있다. 왼쪽 아래 하단에 도시 북쪽에 위치한 “침몰선 추모비”(Памятник Затопленным кораблям)가 회색 실루엣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조형물의 모습은 세바스토폴 만에서 바라본 시점에서 그려진 것이다. 오른쪽 상단에는 소비에트 금성메달(Медаль Золотая Звезда)이 위치하고 있으며, 2차 세계대전 기간 중 격전지였던 도시에 수여하는 “영웅도시(Город-Герой)”임을 상징한다. 세바스토폴은 1965년 5월 8일 이 칭호를 수여받았다. 동시에 연방 최고 소비에트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세바스토폴에 레닌 훈장과 함께 금성 메달이 수여되었다. 한편 오른쪽 하단의 금빛 월계수 가지와 방패 모양의 금빛 테두리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 도시를 지켜온 녀들에게 바치는 영광.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이어짐을 의미한다. 흰색은 도시 해안의 바위와 절벽들을 의미하고, 파란색은 바다를 상징한다. 이처럼 시 문장은 바다와 해군의 이미지를 강하게 상기시키고 있다.

3.2 시(市) 기

그림 14 세바스토폴 시 기(市旗) (출처: sev.gov.ru)



시 깃발은 2000년 4월 2일에 문장과 함께 채택되었다. 주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시민 단체인 "일하는 세바스토폴(Трудовой Севастополь)"이 제출한 도안이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깃발의 비율은 2:3의 비율이며, 시 문장이 깃발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다. 바탕의 붉은 색은 크림전쟁과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흘린 피를 상징한다.

9) <http://sev.gov.ru>(검색일자: 2016.5.25.)

II. 상세개관

4. 역 사

세바스토폴이 위치한 크림 반도의 총면적은 2만 5,600km²로 한반도 전체의 9분의 1에 불과하다. 또한 세바스토폴은 한국의 대구광역시 정도의 면적이다.¹⁰⁾ 하지만 교통의 요지인 반도의 특성상 크림 지역은 역사적으로 독립보다는 외세에 종속된 형태로 유지되어 왔다. 유럽 역사에 등장하는 대다수 열강들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요충지인 크림 반도를 지배했다. 즉, 기원전 6세기부터 세바스토폴이 위치한 고대 크림 반도 지역은 다양한 민족들의 생활권이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따르면, 최초로 기록된 크림 반도의 민족은 타브리아(Ταυρία)인 이었으며, 크림반도는 타우리카(Taurica)로 불렸다. 이들의 인종적, 언어적인 특성은 밝혀진 바가 없지만, 대체적으로 스키타이인들과 생활양식이 유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기원전 6세기 부터 그리스인들이 크림 반도를 비롯한 흑해 지역에 식민지들을 건설하면서 조금씩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림 15 케르소네소스 전경



출처: image4.fanpop.com

크림반도에서의 그리스인의 주요 식민지들로는 밀레토스 왕국이 세운 페오도시아(Φεοδοςια, 우크라이나어 Феодосія, 그리스어 테오도시아 Θεοδοσία)와 케르치 해협에 위치한 판티카페이(Пантикапей, 그리스어 판티카피온 Παντικάπειον)가 있다. 이 중 세바스토폴과 가장 관련이 있는 식민지는 도리아가 세운 헤르소네스(Херсонес 그리스어 케르소네소스 Χερσόνησος)이다. 옛 헤르소네스의 유적지는 세바스토폴 시내 서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헤르소네스를 기점으로 그리스 문화가 융성하였다가, 카프카스 지역에서 발흥한 인도유럽어족의 킴메르(Cimmerian) 인들이 스키타이인들을 물리치고 크림반도를 차지하게 된다. 이들은 기원전 5세기 중엽 크림반도 전역과 남부 러시아 지역을 차지하고 보스포루스 왕국을 세운다. 킴메르 인의 왕조는 기원전 107년 그리스 문화에 감화된 페르시아 계 폰투스 왕국에 종속

10)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296100003> (검색일:2019.04.22)

된다. 이 폰투스 왕조는 기원전 63년부터 서기 370년까지 로마 제국의 속주로 편입된다. 서기 5세기 경에는 훈족의 침입을 받게 되었다. 이 시기 훈족의 침입을 피하기 위해 동쪽에서 이동한 게르만의 일파인 고트 족 일부가 크림 반도에 정착하게 된다.

훈족의 침입 이후 크림 반도를 차지한 세력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던 튀르크 계 불가르인들이었다. 불가르 인들은 과거 그리스 식민지 영역과 남부 러시아 초원지대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발칸 반도 지역으로 남하하여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때문에 비잔틴 제국과의 충돌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비잔틴 제국과의 대립 속에서 크림 지역의 주요 도시들은 카프카스를 연결하는 무역 허브로서의 고대 그리스 식민지가 그랬듯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발전하였다. 이후 8세기 경 유대교를 믿는 튀르크 계 하자르 왕국이 크림 반도를 차지하게 되었다. 하자르 왕국은 케르치 지역에 트무타라칸(Тмутаракань, 우크라이나어 트무토로칸Тмуторокань) 요새를 세우고 무역을 발전시켰다. 이 트무타라칸 요새는 8세기 경 키예프 루시의 블라디미르 대공에 의해 점령되어 속령으로 편입된다.

블라디미르 대공은 988년 옛 헤르소네스의 성터에서 정교회의 세례를 받아 기독교에 귀의한다. 이를 계기로 세바스토폴은 현대 러시아인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렇다고 키예프 루시가 크림 반도 전역에서 주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다. 8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크림 반도의 주요 세력은 튀르크 계 페체네그(Pecheneg), 쿠만(Cuman), 킵차크(Kipchak) 부족들이었으며, 키예프 루시는 이들과 끊임없이 대립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남부 해안 지역은 비잔틴 제국의 영역으로 남았다. 1204년 십자군 원정이 시작될 무렵, 십자군의 비잔틴 제국 공격으로 인한 혼란기 와중에 현 터키 트라브존(Trabzon)을 거점으로 하는 트레비존드 왕조(Empire of Trebizond)가 수립된다. 트레비존드 왕조는 비잔틴이 약화된 틈을 타 크림 반도의 식민지를 점거하였다. 이외에도 당시 통일되지 않은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인 베네치아나 제노바도 크림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특히 제노바는 1261년 비잔틴 제국과의 협정을 통해 크림반도에서의 이익을 인정받게 되었다(넴파에움 조약).

크림 반도의 역사를 바꾼 주요한 사건으로는 1240년대부터 시작된 몽골 제국의 침입을 들 수 있다. 몽골군은 특유의 기동성으로 러시아의 공국들을 비롯한 동유럽의 국가들을 파괴하고 헝가리까지 도달하였다. 그러나 1241년 오고타이 칸(Өгэдэй Хан)이 사망하자 몽골의 침입은 중단되었다. 이후 몽골제국이 원나라와 3개의 칸국으로 분열되었을 때, 크림 반도는 킵차크 칸국의 영토로 남게 되었다.

킵차크 칸국의 지배층은 물론 동쪽에서 이동해 온 몽골 인이었지만, 국가를 구성하는 주요 민족은 오래전부터 크림반도에 거주해왔던 킵차크 튀르크 인들이었다. 때문에 킵차크 칸국의 귀족들 또한 통혼 또는 전쟁을 통해 점차 튀르크 化 되어갔다. 14세기 킵차크 칸국은 외부적으로 일 칸국, 그리고 속령으로 있었던 모스크바 공국의 도전과 내부적으로는 귀족들의 분열로 점차 그 세력이 약화되었고, 마침내 1440년 크림 칸국, 아스트라한 칸국, 카잔 칸국, 시비르 칸국으로 분열되었다. 당시 서쪽의 영토는 강성해진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국이 차지하였고, 동쪽은 모스크바 공국이 주변을 통합하고 러시아 차르국가(Русское Царство)를 선포한 상황이었다.

그림 16 크림 칸국의 위치(가운데 주황색)



출처: <http://krymology.info>

칸국의 수도는 크림타타르어로 “정원 궁전”을 의미하는 바흐치사라이(Бахчисарай, 크림타타르어 바그차사라이Багъчасарай)였다. 1440년 기라이(Герай) 가문의 하지 1세(Хаджи I)가 왕조를 개창한 것이다. 하지 기라이 사후 그의 아들들은 칸의 자리를 두고 쟁탈전을 벌였다. 하지 1세의 6번째 아들인 멩리 기라이(Меньли Герай)는 15세기 말 제노바인들의 지지를 받다가 오스만의 공격을 받아 항복하고 군신관계를 체결하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굴욕적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멩리 기라이 자신과 크림 칸국의 안보는 확실하게 보장되었다. 이는 카잔, 아스트라한, 시비르가 러시아에 의해 정복되어도 크림 칸국만이 18세기까지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결정적 요인이었다.

오스만 제국과 크림 칸국과의 호혜적인 주종관계는 18세기 러시아-튀르크 전쟁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게 된다. 1768년에서 1774년까지의 전투에서 오스만 튀르크는 패했고 쿠키르크 카이나르지 조약(Treaty of Küçük Kaynarca)에 의거 크림 칸국에 대한 종주권이 러시아에 넘어가게 된 것이다. 크림 칸국은 형식상으로는나마 주권을 지킬 수 있었지만, 결국 예카테리나 2세에 의해 1783년 완전히 병합된다.

세바스토폴의 탄생은 이처럼 크림 칸국이라는 한 국가의 멸망에서 시작되었다. 18세기 후반만 해도 이 지역은 절벽만이 있는 황량한 땅이었다. 그러나 흑해를 방어하는 초소이자 지중해로 나아가기 위한 전진 기지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당대의 명장으로 칭송받는 수보로프(Александр Васильевич Суворов, 1730-1800) 장군도 이 곳에 군사 기지를 설치할 것을 여러 차례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직접 건설을 지휘하였다.

1783년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러시아에 귀화하여 복무 중이던 토머스 맥켄지(Thomas MacKenzie, 러시아어Фома Фомич Мекензи, 1740-1786)가 이 지역에 최초로 아흐티야르(Ахтияр) 주둔지를 건설하게 된다. 아흐티야르는 “하얀 절벽”을 의미하는 크림타타르어인 아크야르(Акъяр)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이후 예카테리나 2세의 명을 받아 포툼킨 공작(Григори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Потёмкин, 1739-1791)이 주둔지를 확장 하여 요새를 건설하고, “세바스토폴(Севастополь)” 이라 명명했다. 세바스토폴이라는 명칭은 고대 그리스어로 “영광의 도시”를 의미하였다.¹¹⁾

11) 출처: Большая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http://bse.sci-lib.com/article100495.html>)

그림 17 수보로프 장군 (출처: <http://radiator.ru>)



토머스 맥켄지(좌)와 그리고리 포툼킨 공작(우)



출처: <http://pontika-inkognita.ru>(좌) <http://ru.hayazg.info>(우)

세바스토폴은 설립 이래로 전쟁에 시달려왔다. 그 첫 번째는 크림 전쟁(1853-1856)이었다. 오스만 튀르크가 러시아에 선전포고하고 여기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왕국이 가세한 이 전쟁에서 세바스토폴은 11개월 가까이 공방전을 지속했으나 결국 함락되었으며, 러시아는 패배하였다. 그러나 이 세바스토폴 전투는 러시아인들의 애국심을 상징하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이 전투에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Лев Николаевич Толстой)가 참전하였는데, 그는 이를 토대로 한 수기를 남기기도 했다.

프란츠 루보(F. Roubard), <세바스토폴 공방전>, 출처: <http://www.wikipedia.org>



러시아인의 애국심은 2차 대전 중 나치 독일의 침입에서도 빛을 발했다. 1941년부터 1942년까지 독일-루마니아 연합군은 세바스토폴을 차지하기 위해 포위전을 전개하였다. 히틀러는 세바스토폴을 차지하여 테오도리히스하펜(Theodorichshafen)으로 개칭할 계획이었다. 흑해 연안의 제해권을 확보하고 장차 카프카스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도시가 독일식 이름으로 바뀌는 일은 없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10개월 간의 저항이 격렬하게 지속되었고 결국 도시 전역이 독일군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지만, 소련군이 1944년에 도시를 탈환하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세바스토폴은 “영웅도시”로 여겨지기 시작하였다.

세바스토폴의 지위는 1948년 공화국 직할 특별시(категория городов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го подчинения)로 격상되었다.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은 독자적인 행정경제 중심지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웃 크림 주(Крымская Область) - 당시에는 공화국의 지위를 얻지 못한 - 와 함께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하 러시아SFSR)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다 1954년 2월 러시아 최고 소비에트 지도부회의(SFSR)에서 1654년 페레야슬라프(Pereyaslav) 조약으로 맺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통합 300주년을 기념해 세바스토폴과 크림 주의 관할권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하 우크라이나SSR)에 양도하는 의정서를 발표한다.¹²⁾ 당시 크림과 세바스톨을 러시아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서 우크라이나로 넘길 때만 해도 둘 다 소련에 속했기 때문에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한 개편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소련이 무너지자 크림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러시아인들은 크림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로 복귀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결국 이 사건은 향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갈등의 씨앗이 된다.¹³⁾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함께 우크라이나가 주권 국가로서 독립하게 되었고, 세바스토폴은 이웃 크림 공화국과 함께 독립 우크라이나의 행정구역으로 남게 되었다. 도시의 지위 또한 “특별시(우크라이나어 Місто зі спеціальним статусом)”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소비에트 시기부터 흑해 함대의 기항지로 그 역할을 담당해 온 특수성으로 인해, 러시아는 양국 해군 간 합동 훈련 및 함대 부지를 임대받아 흑해에서의 국익을 보장받고자 하였다. 2006년부터 지속된 러-우크라이나 가스공급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2010년 하리코프 협정(Kharkiv Pact)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안정적인 가스가격을, 러시아는 흑해 함대 부지에 대한 관할권을 2047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2014년 유로마이단 시위와 야누코비치의 실각, 이에 반발하는 크림 반도 내 러시아계의 시위를 계기로 크림 공화국 내에서 2014년 3월말 시행된 분리 독립 주민 투표에서 96.8%의 찬성률로 크림공화국과 함께 러시아에 귀속된다.

12) <http://sevkrimrus.narod.ru/texstes/vozvrat.htm#41>(검색일: 2019.03.24)

13) 김병호, 우크라이나, 드네프르강의 슬픈 운명, 매일경제신문사

● 크림전쟁(1853~1856)

19세기 중반 팽창주의에 젖어 있던 러시아가 자국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발칸 삼아 발칸반도쪽으로 뻗어가려다 영국, 프랑스, 터키 등 서유럽 열강들과 맞닥뜨려 치른 전쟁이다.¹⁴⁾

● 세바스토폴 공방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소 전쟁 중 일부로 1941년 10월30일부터 1942년 7월 4일 간 벌어졌던 전쟁이다. 소련군은 3배에 달하는 독일군의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95,000명의 사상자와 함께 전멸하고 패배했다. 스탈린의 대숙청 이후 전투력 저하 및 병력 손실이 패배의 원인으로 여겨진다. 1941년 11월 중순 경 세바스토폴 내의 병력이 동쪽은 케르치반도, 서쪽은 세바스토폴 쪽으로 분산 된 후 11월 16일 케르치 반도가 점령되며, 세바스토폴만 홀로 저항했으나 패배하게 되었다. 이 전쟁으로 세바스토폴은 영웅도시 칭호를 받게 된다.¹⁵⁾

14)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28/2014022803040.html (검색일: 2019.04.15)

15) <https://namu.wiki/w/%EC%84%B8%EB%B0%94%EC%8A%A4%ED%86%A0%ED%8F%B4%20%EA%B3%B5%EB%B0%A9%EC%A0%84>(검색일: 2019.03.22)

5. 정치

5.1. 행정부¹⁶⁾

세바스토폴은 2014년 3월 러시아 연방에 병합된 이후, 국제법상 지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연방의 연방주체(субъект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로서의 정치·행정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10월 2일부로 **미하일 블라디미로비치 라즈보자예프(Михаил Владимирович Развожаев)**가 세바스토폴의 주지사(시장)에 공식 취임하여 2025년 현재까지 재임 중이다.

라즈보자예프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세바스토폴 주지사 권한대행으로 임명되어 활동하였으며, 이후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에 따라 정식 주지사로 임명되었다. 그는 1980년 12월 30일생으로, 과거 북캅카스 지역 담당 연방 차관(2014-2018년), 하카시아 공화국 임시수장(2018년), 전러시아 인민전선 집행위원장(2018-2019년)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19년 10월부터는 "통합 러시아당(Единая Россия)"의 세바스토폴 지역 지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라즈보자예프는 2020년 12월 이후로는 러시아 연방 국무원 상임위원회 위원직도 겸임하고 있다.

세바스토폴 주지사는 러시아 연방법과 세바스토폴 도시 헌장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적 권한을 가진다:

- 세바스토폴 내 집행기관(행정부처 및 위원회 등)의 통할 및 조직 운영,
-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전략 수립 및 시행,
- 연방 차원의 정책 집행 및 보안·질서 유지,
- 연방 정부 및 타 주정부와의 공식 협력 및 대표.

16) <http://sev.gov.ru/goverment/pravitelstvo/>(검색일: 2019.03.24)

특히 라즈보자예프는 2022년 이후 군사적 긴장 및 흑해 전략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 내 **보안 및 애국주의 중심의 정책** 기초를 강화해왔다. 예를 들어, 그는 2025년 5월 9일 전승절(День Победы) 퍼레이드를 보안상의 이유로 전격 취소함으로써, 세바스토폴의 군사·상징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

이외에도 라즈보자예프는 **"세바스토폴 — 영웅의 도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청소년 대상 군사교육 캠프, 재향군인 지원, 역사기념물 복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연방의 국가정체성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표 3. 시 행정부 부서장(2019년 기준)

이름	보직명 및 업무	비고
일리야 바체슬라보비치 (Пономарев Илья Вячеславович)	부시장(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블라디미르 바실레비치 (Базаров Владимир Васильевич)	부시장(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세르게이 블라디미로비치 (Валуев Сергей Владимирович)	부시장(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이반 세르게이비치 (Кусов Иван Сергеевич)	부시장(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Татарчук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부시장(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안드레이 니콜라예비치 (Шишкин андрей Николаевич)	부시장(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마리야 알렉산드로브나 (Литовко Мария Александровна)	부시장(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세바스토폴이 우크라이나의 구성원이었던 2014년도 까지 시 행정업무를 담당한 기관은 "세바스토폴 시 행정부(Севастопольська Міська Державна Адміністрація)" 였다. 시장(Голова міськдержадміністрації)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또는 총리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였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마지막 세바스토폴 시장은 블로디미르 야추바(Володимир Григорович Яцуба)로, 2014년 2월 크림 사태 당시 자신을 "인민의 지사(Народный Губернатор)" 라고 칭한 알렉세이 찰리의 등장과 격화되는 시위로 사임하게 되었다. 이후 크림 반도 전역이 러시아연방에 편입되자 우크라이나의 시 행정부와 그 기능은 자연스럽게 소멸되었다.

표 4. 우크라이나 정부 시기 세바스토폴 역대 시장 목록

번호	이름	임기
1	이반 페도소비치 예르마코프 (Іван Федосович Єрмаков)	1991-1994
2	미콜라 미하일로비치 흘루쉬코 (Микола Михайлович Глушко)	1994-1995
3	빅토르 미하일로비치 세메노프 (Віктор Михайлович Семенов)	1995-1998
4	보리스 올렉산드로비치 쿠체르 (Борис Олександрович Кучер)	1998-1999
5	레오니드 미하일로비치 준코 (Леонід Михайлович Жунько)	1999-2005
6	세르히 아나톨리요비치 이바노프 (Сергій Анатолійович Іванов)	2005-2006
7	세르히 블로디미로비치 쿠니친 (Сергій Володимирович Куніцин)	2006-2010
8	발레리 블로디미로비치 사라토프 (Валерій Володимирович Саратов)	2010-2011
9	블로디미르 흐리호로비치 야추바 (Володимир Григорович Яцуба)	2011-2014

5.2 입법부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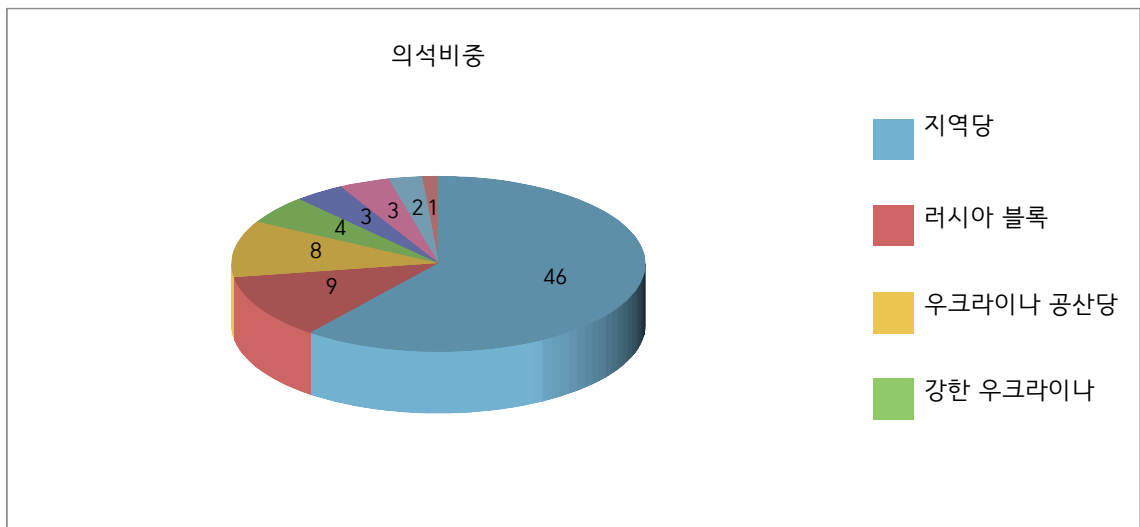
세바스토폴 시의 입법기관은 입법회의(Законодательное Собрание г. Севастополя)로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입법회의는 과거 우크라이나 소속이었을 당시의 세바스토폴 시 라다(평의회, Севастопольська Міська Рада)를 개명한 것이다. 도시의 조례 및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입법 의회 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의석수는 총 각각 24명이며, 이 중 8명만이 단순다수제 투표로 선출되고, 나머지 16명은 모두 정당명부 비례대표로 선출된다. 선거권은 세바스토폴 시내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시민에 부여된다.

17) <http://sevzakon.ru>

입법회의 의원에 입후보하려면 21세 이상의 러시아 연방 시민권자여야 하며, 범죄경력 등의 형사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입법회의 의원은 다른 국가기관의 보직을 겸하거나 다른 입법기관의 의원이 될 수 없다. 절차에 따라 의장단을 선출하며 투표에 대한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입법회의는 시장과 행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법률안 제출에 있어 입법부와 행정부간 견제를 실현하고, 시 예산안을 심의한다. 입법회의는 시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할 수 있는데, 재적의원 1/3이 발의하고 총원 2/3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주목할 만 한 점은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바로 연방 대통령의 심의를 거치며 시장 면직여부는 대통령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는 세바스토폴의 안정적인 점유를 공고히 하기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5. '14년도 제 1대 의회 정당별 의석수와 비중¹⁸⁾

정당	의석수
통합러시아당	22
자유민주당	2



초대 입법회의 의장은 통합러시아당 소속의 알렉세이 찰리(Алексей Михайлович Чалый)였으며 세바스토폴 내 친러시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2014년 4월 1일 의회의 간접선거를 통해 시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되었으며, 푸틴 대통령에게 메냐일로 현 시장을 추천하며 권한대행 직을 사임하였다. 같은 해 9월 22일 의회의 만장일치로 입법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2016년 3월 22일 의장직을 사임하였다. 2016년 5월부터 통합러시아당 소속의 예카테리나 알타바예바(Екатерина Борисовна Алтабаева)의원이 의장 권한대행 직을 수행하고 있다.¹⁹⁾

18) <http://sevzakon.ru> (검색일: 2016.5.29)

19) <http://sevzakon.ru> (검색일 2016.5.29)

2014년 이전의 우크라이나 관할이었던 시절의 세바스토폴 의회는 우크라이나어로 의회를 뜻하는 “라다(Рада)” 라는 명칭을 갖고 있었다. 이 시 의회(Севастопольська Міська Рада)는 앞서 언급한 시 행정부와 함께 도시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 당시 의원의 임기는 4년이었으며, 의석수는 총 76석이었다. 혼합선거제로 38석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나머지 38석은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로 선출되었다. 러시아계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상 친 러시아적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지역당(Партія Регіонів)이 강세를 점하고 있었으며, 우크라이나 내 다른 지역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단순히 친러적인 정책을 넘어서 "러시아적인 것"을 추구하는 정당이 의석수를 확보하였다²⁰⁾. 대표적인 정당은 “러시아 블록(Русский Блок, 우크라이나어 Руський Блок)”이 있으며, 2010년 선거에서 총 9석을 확보하였다.²¹⁾

5.3 사법부

세바스토폴의 사법체계는 러시아 연방의 헌법 및 연방법을 근거로 구성되며, 행정적으로는 연방 수준과 지역 수준이 병존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 체계는 연방 사법제도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지방 입법기관의 참여와 조정을 통해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바스토폴 지방 검찰청장은 2018년 제정된 「세바스토폴 검찰조직에 관한 법률」(№428-3 C)에 따라, 시장이 입법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이 임명 방식은 검찰의 중립성과 공공 책임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제도로 평가되며, 도시 행정부와 입법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반영한다. 검찰청장은 지역 내 형사사건 기소, 수사 감독, 법령 이행 감시, 공익 보호 등의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사법기관은 연방 차원의 법적 틀에 따라 설치되며, 현재 세바스토폴 내에는 일반 시 법원, 군사법원, 행정법원, 중재법원 등이 운영되고 있다. 세바스토폴의 관할권에는 흑해함대 주둔에 따른 군사 재판 관할구역도 포함되며, 민간 및 군사 사건을 각각의 법원이 분리하여 다룬다.

입법회의는 지역의 행정 및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로운 사법기관이나 중재 재판관 직의 설치를 연방 상급법원에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설치는 연방 대법원 또는 관할 고등법원의 동의를 수반되어야 하며, 최종 승인 후 운영이 가능하다.

중재 재판관은 주로 기업 간 분쟁, 상거래, 계약 해석 등 경제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독립적인 법적 기능을 가진다. 이들의 법적 지위, 관할 권한, 절차 및 책임 범위는 「중재법원법」 등 연방법과 세바스토폴 시의 지방 법령에 의해 규정된다. 2023년 이후, 세바스토폴에는 상설 중재센터가 설치되어 경제 분쟁 해결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도시의 법적 안정성과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세바스토폴의 사법부는 이처럼 연방 법질서 속에서 작동하면서도, 지역 특성과 입법적 자율성을 일정 부분 보장받는 체계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도시 내 법치주의 확립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제도적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20) 이외에도 크림 공화국에서는 러시아 단결당(Руська Єдність)이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었다.

21) <http://sevnews.info/rus/view-news/vybory-Oficialnye-rezultaty-golosovaniya-po-vyboram-v-Sevastopolskij-gorodskoj-sovet/1568>(검색일: 2016.5.30.)

5.4 흑해 함대²²⁾

5.4.1. 함대의 역사

군사 도시로서의 세바스토폴의 역사와 시(市) 행정에 대한 연방 대통령의 개입은 이 도시가 러시아 국익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세바스토폴은 강을 끼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취락이 아니었다. 도시는 철저히 계획적이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세워졌다. 18세기 지중해로 향하는 러시아의 부동항으로서, 세바스토폴은 보스포루스 해협을 따라 지중해로 진출 수 있는 전진기지이자 서유럽과 오스만 제국의 진출을 막는 방파제였다. 도시는 함대와 함께 성장하였다. 함대의 역사는 곧 도시의 역사였고, 도시의 역사는 곧 함대의 역사였다.

1790년, 흑해 함대는 표도르 우샤코프(Фёдор Фёдорович Ушаков, 1745-1817) 제독의 지휘 아래 케르치 해협에서 오스만 제국 해군에 승리한다.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까지 지속된 러시아-튀르크 전쟁에서 흑해 함대는 러시아의 전투 승리에 기여했다. 1855년의 세바스토폴 함락과 뒤이은 크림 전쟁 패전은 흑해 함대의 활동 영역을 축소시켰다. 1856년 파리 조약의 결과 흑해 전 지역이 비무장지대가 되었고, 다뉴브 강 하구와 흑해 전역의 군사작전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20세기 초 러일전쟁이 발발하였고, 발트 함대는 일본에 패했다. 국가적인 패배의식과 지도층의 가혹한 착취를 견디지 못한 포툼킨 함의 수병들이 1905년 반란을 일으킨다. 2월 혁명의 혼란 속에서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근대화된 오스만 해군과 격돌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1917년 10월 혁명이 시작되어 볼셰비키는 함대 대부분을 노보로스스크(Новоросси́ск)에서 자침시켰다. 하지만 백군 세력은 표트르 브랑겔(Пётр Николаевич Врангель, 1878-1928) 장군이 함선 일부를 탈출시켜 1924년까지 대 볼셰비키 항전을 지속하였다. 흑해 함대의 재건은 193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세바스토폴 전투 등 2차 세계대전 중 대규모의 전투를 겪은 흑해 함대는 다시 강한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1952년 흑해 함대의 존재로 인해 부담을 느낀 터키는 나토 가입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흑해 함대는 당시 소비에트 해군 전력의 1/6을 차지할 정도로 그 강력함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바스토폴이 지닌 지정학적 위치와 흑해 함대의 전력은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양국간 분쟁의 씨앗이 된다. 러시아는 역사적인 근거와 국익으로 인해 흑해 함대에 대한 주도권을 절대로 상실할 수가 없었고, 우크라이나는 세바스토폴이 우크라이나 영유권에 있다는 근거와 자국의 안보를 위해 흑해 함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소규모 충돌을 일으켰고 1997년 5월 28일 흑해 함대 분할에 관한 협정을 타결하였다.²³⁾

그 결과 흑해 함대 대부분은 러시아 측으로 인도되고 우크라이나 해군은 구 함대로부터 보상금 약 5억 불과 함께 162척의 함선을 받게 된다. 러시아 측은 1997년부터 2017년까지 기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 양측의 가스공급 갈등이 빚어졌고 그 결과 2010년 하리코프 협정이 체결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안정적인 가스가격을, 러시아 측은 2047년까지 기지 사용이 보장되었다. 그러나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 결과 흑해 함대는 영구히 러시아의 통제권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 해군은 세바스토폴에 주둔했던 함선을 빼앗기고 그 나머지 몇 십 척과 6,500여명의 병력을 남긴 채 와해되다시피 했다.²⁴⁾

22) 출처: <http://flot.sevastopol.inf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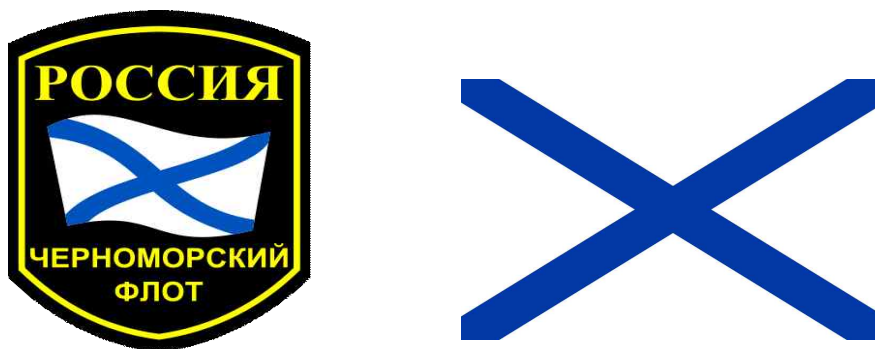
23) "KIDA 세계분쟁 데이터베이스(출처: http://www.kida.re.kr/woww/dispute_detail.asp?idx=67)"

24)

<http://www.kyivpost.com/article/content/kyiv-post-plus/ukraines-navy-barely-recovering-from-its-near-death-experience-396689.html>

5.4.2 함대 상징물

그림 22. 부대마크와 함선 후방에 게양하는 함미기(艦尾旗)



(그림출처: <http://ru.wikipedia.org>)

5.4.3 함대 편제

흑해 함대에 근무하는 장병의 인원수는 약 25,000명이다. 사령부 본부는 세바스토폴 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하 전단 및 전대는 크림 반도 내 도시 뿐만 아니라 흑해 동부 연안지역 의도시들에 산재되어 있다. 2019년 현재 함대 사령관은 이고르 블라디미로비치 아시뽀브(Осипов Игорь Владимирович) 제독으로, 2019년 5월 3일 대통령령으로 흑해 함대에 취임하였다. 흑해 함대는 2014년 크림 병합 작전에 참여하였고, 2015년 이후부터 시리아 내전에 참전하다.²⁵⁾현재 군함은 55척이며, 2020년까지 전력증강 사업에 따라 15척 이상의 최신 함정들이 흑해함대에 배속될 예정이다. 러시아는 2013년 5월 부터 “지중해에 러시아의 국익이 있다”는 기치 아래 ‘지중해 상주 기동 전대’운용중이다.

◎ 함대 편제 및 군항 위치

● 크림 군항(Крымская Военно-морская База): 노보로시스크 군항과 함께 흑해 함대를 구성하는 군항 중 하나이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 시기 크림 군항이 기능했었으나 1991년 연방 해체 후 독립 우크라이나 해군이 부지 및 항만시설을 접수하고 남부 함대(Південна військово-морська база)라 명명하였다. 2014년 크림 병합으로 우크라이나 남부 함대는 해체되고 다시 러시아 해군의 소유가 되었다. 주둔지는 크림 공화국 예브파트리아(Евпатория) 도누즐라프(Донузлав) 석호(潟湖)이다.



25) 출처: <http://ria.ru/spravka/20130417/933146830.html>(검색일자: 2016.6.13.)

- ▲ 제41미사일고속정전단(41-я бригада ракетных катеров)
 - 제166소형미사일고속정전대(166-й дивизион малых ракетных кораблей)
 - 제295술린스키미사일고속정전대(295-й Сулинский дивизион ракетных катеров)

- ▲ 제68해역방어전단(68-я бригада кораблей охраны водного района)
 - 제400대잠함정전대(400-й дивизион противолодочных кораблей)
 - 제418소해함(기뢰제거)전대(418-й дивизион тральщиков)

- ▲ 제197강습상륙함전단(197-я бригада десантных кораблей)

- 노보로스스크 군항(Новороссийская Военно-морская База): 러시아 해군이 2014년 크림 군항을 확보하기 전까지 흑해 함대의 실질적인 중심지였다. 북 카프카스 지방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 무력을 투사하기 용이하다. 이 군항은 2008년 조지아 침공과 2015년 시리아 공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크라스노다르 변경주 노보로스스크(Новороссийск)에 위치하고 있다.

- ▲ 제4독립잠수함전단(4-я отдельная бригада подводных лодок)

- ▲ 제184해역방어전단(68-я бригада кораблей охраны водного района)
 - 제181소형대잠함정전대(181-й дивизион малых противолодочных кораблей)
 - 제170소해함(기뢰제거)전대(170-й дивизион тральщиков)

- ▲ 제183해난탐색구조전대(183-й дивизион судов поисковых и аварийно-спасательных работ, войсковая часть 76044)

- ▲ 제382해병독립대대(382-й отдельный батальон морской пехоты)

- ▲ 제11독립해안포병여단(11-я отдельная береговая ракетно-артиллерийская бригада)

- 세바스토폴 군항(Севастопольская Военно-морская База): 함대의 중심으로 사령부 본부 및 직할대, 세바스토폴 시 주변 예하 부대들을 관할한다.

- ▲ 제30해상전투단(30-я дивизия надводных кораблей)

- ▲ 제9군수지원전단(9-я бригада морских судов обеспечения)

- ▲ 제519해상정보전대(519-й отдельный дивизион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х кораблей)

- ▲ 제15독립해안포병여단(15-я отдельная береговая ракетно-артиллерийская бригада)

- ▲ 제810독립해병여단(810-я отдельная бригада морской пехоты)

6. 경제²⁶⁾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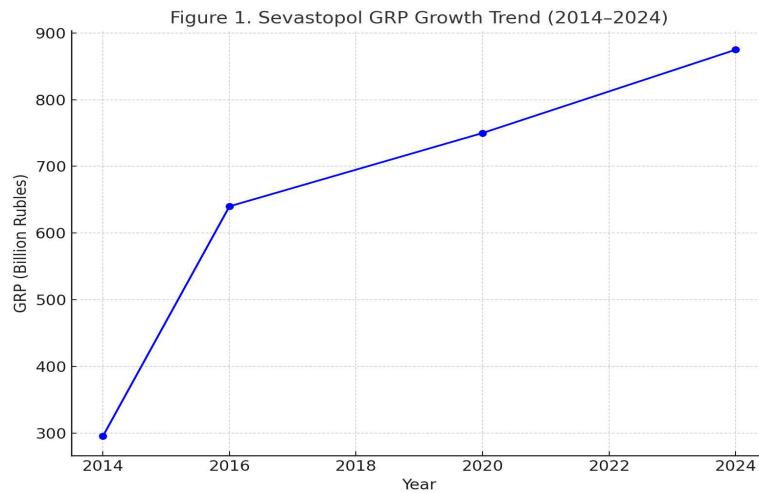
세바스토폴은 러시아 연방의 연방시(federal city)로서, 지정학적 중요성과 함께 독자적인 경제 전환 경로를 밟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014년 러시아에 병합된 이후, 도시 경제는 군사 중심 구조에서 민간 부문 중심의 다핵형 산업 구조로 재편되는 과도기를 지나고 있다. 본 절은 세바스토폴의 최근 10년간 경제적 추이를 실증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지역총생산(GRP)의 성장 추이

세바스토폴의 지역총생산(GRP)은 병합 당시인 2014년 약 3,000억 루블 수준에서 2024년에는 약 8,750억 루블로 성장하였다. 이는 연평균 약 8.5%에 이르는 고성장률로, 남부 연방관구 내에서도 중상위 수준의 성장성을 나타낸다. 연방정부의 전략적 재정 지원, 군사 및 기반 산업 고도화, 인프라 재정비, 민간 투자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기여한 결과이다.

도표 1: 세바스토폴 GRP 성장 추이 (2014-2024)]

이 도표는 10년간 지역 총생산의 양적 확장을 시계열로 시각화하여, 경제 성장의 실증적 흐름을 명확히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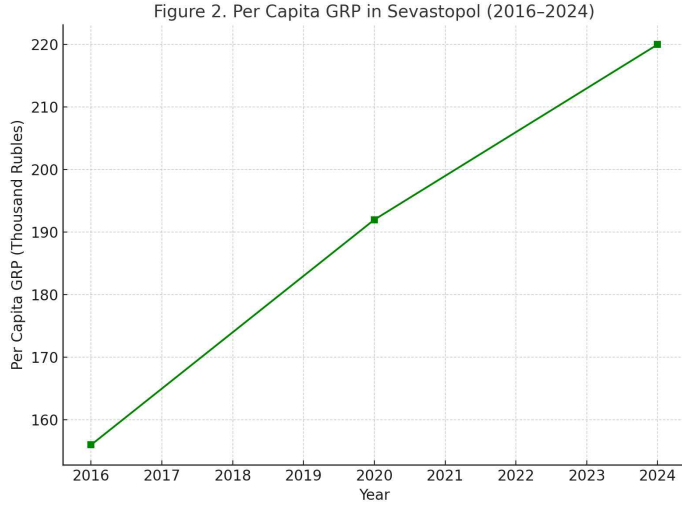
3. 1인당 경제지표 변화 및 생활수준

1인당 GRP는 2016년 15만 5,888루블에서 2024년에는 약 22만 루블로 상승하였다. 이는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연방 관할 지방 도시들 중에서는 상위권에 해당한다. 평균 월임금은 33,900루블이며, 실업률은 3.9%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 안정성은 해군 및 공공부문 중심의 고정적 노동시장과 민간 기업 확장에 따른 신규 고용 창출 효과에 기인한다.

26) <http://www.ukrstat.gov.ua/>

[도표 2: 1인당 GRP 변화 (2016-2024)]

본 도표는 개인 단위 경제생산성과 생활 수준의 계량적 향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4. 산업 구조와 다각화 현황

2024년 기준 세바스토폴의 산업 구조는 아래와 같이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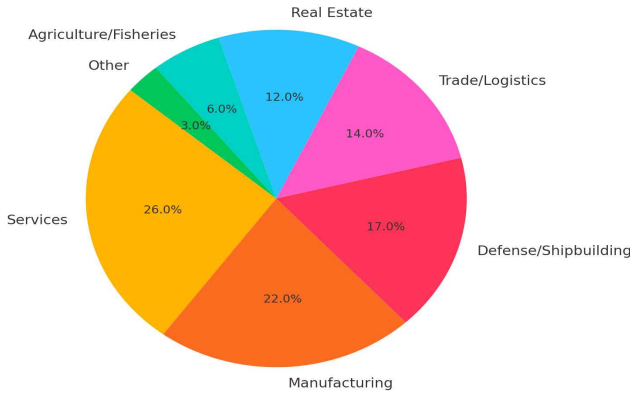
- 서비스업: 26%
- 제조업: 22%
- 군사 및 조선산업: 17%
- 도소매·물류: 14%
- 부동산·임대업: 12%
- 농수산업: 6%
- 기타 부문: 3%

이는 과거 군사·조선 중심의 단일 구조에서 다핵형 산업 생태계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친환경 관광, 항만 물류 등으로의 산업 전환이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연방 차원의 디지털 전환 전략 및 수출 중심 지역경제 육성 기조와 일치한다.

[도표 3: 세바스토폴 산업 구성 비중 (2024)]

이 파이 차트는 각 산업 부문의 상대적 비중을 정량적으로 표현하여, 산업 다변화 수준과 전략 부문의 위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Figure 3. Sevastopol GRP by Industry (2024)



5. 전략 산업 및 정책 전개

가. 조선 및 군수 산업

흑해함대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 산업은 여전히 주요 부문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민간 조선소와 해양 드론 기술 기업들이 연계되어 고도화되고 있다. 2020년 이후 이 부문에 대한 누적 투자액은 약 2,000억 루블에 이른다.

나. 디지털 경제 및 스타트업 생태계

2022년부터 본격화된 '디지털 세바스토폴' 클러스터는 지역 대학과 협업하여 AI, 사이버 보안, 스마트 인프라 기술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육성 중이다. 이는 지역 내 기술기반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 관광 산업

연간 27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세바스토폴의 관광 부문은 해양 레저, 군사사적지, 와인 관광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관광 기반 시설 확충은 민간 투자 유치와 연결되어 있으며, 계절성 완화 및 관광 고부가가치화가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라. 농수산업 및 해양식품 가공

세바스토폴은 흑해 연안을 기반으로 한 포도 재배와 어획·양식 산업이 결합된 해양 농수산물 클러스터를 육성 중이다. 수출 기반 고부가가치 가공업 확대와 함께, 저온물류 인프라 구축이 병행되고 있다.

6. 제도적 기반과 지역개발 전략

세바스토폴은 특별경제구역(OЭЗ)으로 지정되어 법인세 감면, 세무 혜택, 투자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을 활용한 항만, 도로, 폐기물 인프라 개선이 진행 중이며, 지역 청년 고용 연계형 ICT 교육 프로그램도 확산되고 있다.

세바스토폴은 중앙정부 주도의 전략적 투자와 도시 자율화 노력을 병행하여 양적·질적 경제 성장 기반을 점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향후 도시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는 산업 다변화의 심화, 기술 기반 민간 경제의 강화, 그리고 국제 제재 하에서도 유지 가능한 재정 자립도의 달성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혁, 민관 협력 거버넌스 확대, 도시 브랜드 전략 수립 등이 병행되어야 하며, 세바스토폴은 군사도시의 정체성을 넘어 **‘지속가능한 해양-디지털 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6.2. 주요 산업²⁷⁾

6.2.1 철강 및 조선 산업

세바스토폴은 러시아 흑해 함대의 핵심 전략 기지로서 역사적으로 군수 산업과 조선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왔다. 2025년 현재에도 선박 수리 및 건조 시설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주요 기업으로는 "세바스토폴 조선소", "남부조선기계", 그리고 "흑해기술연합" 등이 있다. 이들 기업은 군용 구축함과 해안 방어 함정의 유지보수뿐 아니라, 민간 화물선과 어선에 대한 건조 수요에도 대응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국방부와와의 장기 계약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 수요는 지역 내 철강 및 금속 가공 산업의 공급망 강화를 촉진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조선 산업에 첨단 자동화 설비와 디지털 설계 기술이 도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고용 유연성은 줄었지만 생산성과 정밀성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6.2.2 항공 및 전자 산업

항공 산업 부문에서는 2025년 현재 세바스토폴 항공공업(GUP «Севастопольское авиационное предприятие»)이 지역 기술 집약형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러시아 내 헬리콥터 부품 생산 비중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인항공기(UAV) 관련 기술 개발이 병행되고 있으며, 블라디보스토크 및 사라토프와 함께 주요 UAV 부품 생산지로 부상하고 있다. 전자 산업에서는 세바스토폴 라디오 공장을 중심으로 고주파 통신, 위성 추적기술, 군사 레이다 모듈 생산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방부 산하의 위탁 프로젝트 수주가 크게 증가하였다. 2023년 이후에는 군수 전자뿐 아니라 민간 통신 기기 생산 비중이 26%로 확대되어, 지역 산업의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세바스토폴 공과대학과 연계된 연구 클러스터도 형성되어 R&D 중심의 인재 양성이 이뤄지고 있다.

6.2.3 농업 및 수산업

세바스토폴은 흑토 기반의 비옥한 토양과 온화한 기후 덕분에 농업 생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전체 경작지는 약 29,200헥타르로 확대되었다. 주요 생산품은 여전히 밀, 보리, 옥수수 등 곡류 중심이나, 최근에는 포도, 체리, 허브류 등 특산물 재배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역 와인산업은 국제 품평회 수상 경력을 기반으로 러시아 내 프리미엄 농산물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와인투어 연계형 농촌관광 활성화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수산업 부문에서는 연안 어획량 증가와 함께 양식 기술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특히 도미, 농어 등 고급 어종에 대한 수요 대응이 강화되었다. 세바스토폴 어업연합은 2025년 수산물 수출 목표를 1.7배 상향 조정했으며, 저온 물류 및 냉동 가공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 지역 식품 수출 클러스터 형성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6.2.4 관광 산업

관광 산업은 세바스토폴 경제 구조 전환의 핵심 성장축 중 하나로, 2025년 연간 방문객 수는 약 320만 명에 도달하였다. 세바스토폴만과 흑해 절벽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 관광, 헤르소네스 고고학 단지 및 2차 대전 전적지를 활용한 역사관광, 그리고 요트 레이스, 국제 다이빙 대회 등 고급 스포츠 관광이 병행되고 있다.

특히, 2023년 개장한 '세바스토폴 역사문화단지'는 가상현실(VR) 기반의 전시기술을 활용해

27) <http://sevastopol.gov.ru/city/industry/>

역사 체험 콘텐츠의 몰입도를 높였으며, 국내외 방문객 만족도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또한 지역정부는 관광객 체류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호텔세 감면, 지역 연계투어 개발, 교통 편의성 제고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광 수입의 지역 내 GDP 기여율도 2021년 8.7%에서 2025년 13.2%로 상승하였다.

7. 사회문화

7.1 인구 및 민족 구성

7.1.1 인구²⁸⁾

2025년 기준 세바스토폴의 인구는 약 44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6년 대비 약 2.3만 명 증가한 수치로, 전반적인 인구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중 14세 미만 인구는 약 9만 명으로 추산되며, 도시 인구는 약 41만 명, 시골 인구는 약 3만 명으로 도시 인구가 전체의 93% 이상을 차지하는 도시 중심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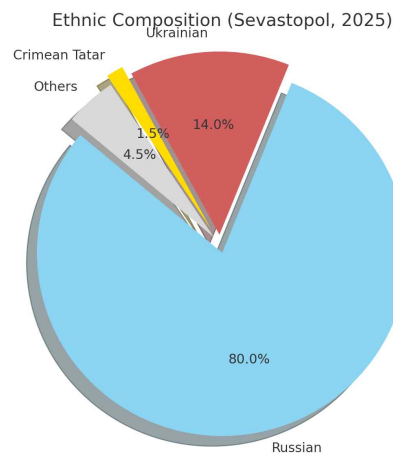
성별 구성비는 남성이 46%, 여성이 ****54%****로 여전히 여초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37세 수준이다.

인구 증가는 주로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로부터의 전입에 기인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정세 불안과 전선 고착화, 민간인 피해 증가로 인해 우크라이나 국적자의 이주 및 피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민은 천 명 단위로 증가하며, 세바스토폴의 사회적·민족적 구성을 변화시키고 있다.

7.1.2 민족 구성

2025년 현재, 세바스토폴의 민족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러시아인: 약 80%
- 우크라이나인: 약 14%
- 크림 타타르인: 약 1.5%
- 기타 소수 민족: 약 4.5%



28) <http://sevastopol.gks.ru>(검색일 2016.5.30)

7.2 행정구역

러시아 연방 내에서 세바스토폴의 지위는 연방시(город федер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이다. 수도 모스크바와 제 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도시가 공화국이나 주(州) 등에 속해있지 않는 독립적인 지위를 누린다. 연방시라는 개념은 대한민국의 특별시나 광역시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권역은 4개의 구(Район)인 가가린(Гагаринский), 레닌(ленинский), 나히모프(Нахимовский), 그리고 발라클라바(Балаклавский)로 구분된다. 각 구는 Село, Поселок 등의 하부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었다. 특이한 점은 우크라이나 관할이었던 2014년까지 세바스토폴 특별시 예하에 인케르만(Инкерман) 시가 독립적으로 존재했었으나 러시아의 관할권으로 넘어간 후에는 발라클라바 구에 통합되었다는 것이다.

세바스토폴 시(市) 하위 행정단위 목록

지위	명칭 (러시아어 / 우크라이나어 / 크림타타르어)	비고
시(市)	인케르만 (Инкерман / Інкерман / Инкерман)	발라클라바 구 편입(2014~)
구(區)	나히모프 구 (Нахимовский Район / Нахімовський Район / Нахимов Районы)	—
	발라클라바 구 (Балаклавский Район / Балаклавський Район / Балькълыва Районы)	—
	레닌 구 (Ленинский Район / Ленінський Район / Ленин Районы)	—
	가가린 구 (Гагаринский Район / Гагарінський Район / Гагарин Районы)	—

7.3 주요 유적지

세바스토폴의 주요 유적지는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 크림타타르인의 이슬람 문화, 그리고 러시아 정교 문화와 소비에트 군사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과거에 대한 영광과,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 그리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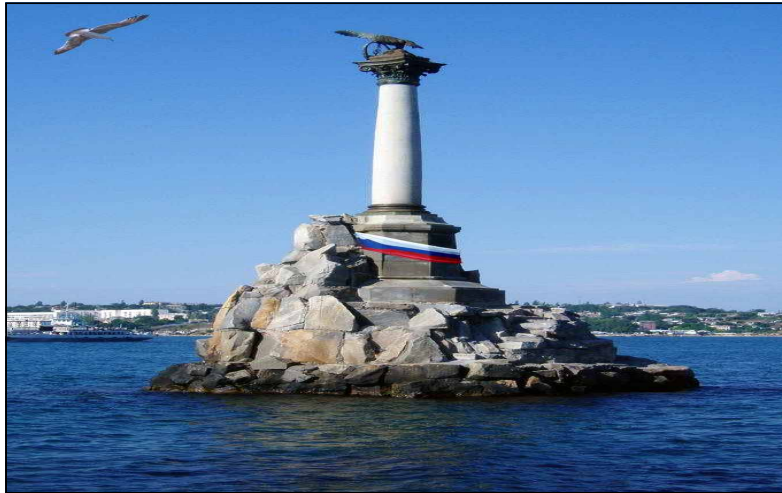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헤르소네스가 있다. 헤르소네스는 고대 그리스의 유적지로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인들에게는 블라디미르 대공이 세례를 받은 곳으로 러시아 정교의 역사와 러시아인의 정신세계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스 유적지 근처에는 성 블라디미르 정교회 성당이 세워져 있다.

그림 36 헤르소네스 성 블라디미르 성당



(출처: <http://irecommend.ru>)

그림 37 침몰선 기념탑



(출처: <http://crimea-tour.ru>)

전쟁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적지로는 “침몰선 기념탑”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기념탑은 크림 전쟁(1853-1856) 당시 러시아 제국 해군 사령부는 해안포병 지원을 위해 노후한 범선들을 뱃길을 가로질러 침몰시키도록 하는 교육지책 전술을 썼다. 이후 도시 방어를 위해 희생된 배들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기념탑은 그로부터 50년이 흐른 1905년 ‘1차 세바스토폴 방어전’ 50주년 기념식에 맞춰 세워졌고²⁹⁾, 에스토니아 출신인 아만두스 아담손(Amandus H. Adamson, 1855-1929)과 러시아인 발렌틴 펠드만(Валентин Августович Фельдман, 1864-1928)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세바스토폴 시 문장에도 묘사되어 있을 정도로, 이 기념물은 세바스토폴을 상징하는 하나의 랜드마크로서 인식되고 있다.

29) <https://kr.rbth.com/travel/2015/09/02/393841> (검색일: 2019.04.22)

그림 38 헤르소네스 종의 사진



(<http://blog.daum.net>)

헤르소네스 근처에는 크림 전쟁과 관련된 낡은 종이 우뚝 서있다. 이 종은 1792년 오스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러시아군이 노획한 무기를 녹여 만든 것이다. 그러나 크림 전쟁의 패전과 함께 이 종은 프랑스에 노획되었다가 1913년 로마노프 왕조 300주년 기념으로 반환되었다. 1991년에는 크림 반도에서 휴가 중이었다가 쿠데타를 맞게 된 고르바초프가 열친을 만나면서 쿠데타 진압에 뜻을 같이 하며 이 종을 찢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³⁰⁾.

30) http://blog.daum.net/_blog/BlogTypeMain.do?blogid=0Akql

이 외에도 크림 전쟁 당시의 세바스토폴 공방전의 무대가 되었던 요새가 재현되어 있고, 전투 당시를 재현한 디오라마 박물관이 세워져 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세바스토폴 공성전에서 고향을 지키기 위해 산화한 군인들을 기리는 동상이 해변과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그림 39 수병과 군인상



(출처: www.wikipedia.org)

그림 40 재현된 세바스토폴 요새



(출처: blog.daum.net)

● 세바스토폴 돌고래 수족관

세바스토폴 아르틸레리스카야 만에는 돌고래 수족관이 위치하고 있다. 수족관 관내, 흑해 돌고래들과 함께 수영 및 오락 시설 외에도 돌고래 번식 및 재활을 위한 특수시설이 위치하며, 돌고래 수족과 내 아쿠아리움에는 큰돌고래, 흰돌고래, 물개 등이 있다. 또한 이 외에도 카자치야 만에는 돌고래를 군사용으로 훈련시키는 수족관도 위치하고 있다.³¹⁾



● 발라클라바 지하 잠수함 기지

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 후 핵공격 시 장비와 인명 보호를 이유로 소련시대 9년간 발라클라바 내 잠수함 수리와 보급용 지하공장이 건설되었다. 만이라는 위치적 특성과 독특한 지형 덕분에 외부로부터 격리된 산 아래 지하기지를 건설하였고, 외부 공급이 끊겨도 20일 동안 생활이 가능하고, 비밀 갱도 내 통신시설, 연료와 무기 저장고, 식량 창고 존재 등이 존재하며, 전시 시 7기의 중형 잠수함 및 9기 소형 잠수함 외에 최대 3천 명의 인원을 수용 가능하다. 잠수함 수리공장은 1993년까지 가동되다가 1995년에 마지막 잠수함이 기지를 떠났다. 그 후 해군 지하기지는 폐쇄되었다가 좀도둑 소굴이 되었다. 그러나 2003년 ‘발라클라바 해군 종합박물관’이 개장되었다.

● 케르소네소스 타우리카

세바스토폴 서쪽 해안, 고대그리스 영웅들의 도시인 케르소네소스가 위치하고 있었던 곳으로 15세기 때까지 하자르 한국, 키예프 공국, 그리스, 터키, 제노바 상인들의 무역의 중심지였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역사고고학보호구역으로 전 세계 고고학자 및 학생들이 찾는 거대한 연구기지의 역할을 한다. 이 곳에서 발굴 유물 중 가치 높은 것은 샤프페테르부르크 에르메타주, 모스크바 국립역사박물관, 푸쉬킨 조형예술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³²⁾

31) <https://kr.rbth.com/travel/2015/09/02/393841> (검색일: 2019.03.22)

32) <https://kr.rbth.com/travel/2015/09/02/393841> (검색일: 2019.03.22)

7.4 인물

사진	이름	생몰년/출신도시/약력
	세르게이 키셀료프 (Сергей Иванович Киселёв)	1919-1945 / 소비에트 연방 영웅, 공군 소속으로 바그라티온 작전 참여
	이고르 아자로프 (Игорь Вадимович Азаров)	1962- / 지역 언론인, 2014년 크림 사태당시 공화국 의장에 주민투표 촉 구 서한 전달
	세몬 세멘첸코 (Семен Ігорович Семенченко)	1974- / 우크라이나 정치인, 2014년 돈바스 내전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참여
	알렉세이 니콜라예비치 미쉘	1941년 3월 8일 생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현 피겨스케이팅 코치 알렉세이 야구딘, 카롤리나 코스트너 등 다수 피겨스타 지도 ³³⁾
	엘자 이바노브나 레쥬데이	1933년 2월 19일 생 소련공훈배우 대표작: <바람>, <하키선 수들>

33) https://ru.wikipedia.org/wiki/%D0%9C%D0%B8%D1%88%D0%B8%D0%BD,%D0%90%D0%BB%D0%B5%D0%BA%D1%81%D0%B5%D0%B9_%D0%9D%D0%B8%D0%BA%D0%BE%D0%BB%D0%B0%D0%B5%D0%B2%D0%B8%D1%87 (검색일: 2019.04.11)

8. 대한관계

세바스토폴과 한국과의 대외 관계에서 경제 협력 분야의 교류가 아직은 미비하다.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관할이었던 시절부터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 이후에도 한국의 투자 및 사업 진출은 미미한 편이다. 서방 국가들의 대 러시아 제재로 인한 경제 위기 또한 한국 내 투자자들의 관심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분쟁지역이라는 이미지는 세바스토폴이 위험한 지역이라는 인식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현재 세바스토폴과 한국간의 교류는 그리 많지는 않으나 민간적 차원에서의 문화 교류가 2013년부터 시작되었다. 2013년 7월 2일 세바스토폴 교향악단이 내한공연을 가진 것이다.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소리꾼 장사익과 세바스토폴 필하모닉이 함께하는 공감음악회'를 개최되었다. 공연은 한국의 혼을 노래하는 소리꾼 장사익과 클래식 본고장인 유럽의 세바스토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만남으로 동서양 음악이 만난 최고의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었다. 음악회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막심 트라비차', 비제의 '카르멘' 등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성 있는 연주곡과 영화음악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다수 선보인다. 특히 폭발적인 가창력 소유자 장사익이 '쫄레꽃', '봄날은 간다' 등 히트곡을 열창하는 무대가 마련돼 동서양 음악의 조화로움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 공연을 위해 40여명의 필하모닉 단원들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정상급 피아니스트와 소프라노 등도 함께하였다.

1947년 창단한 세바스토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유려한 선율과 다이내믹한 리듬으로 매년 해외 유명한 유럽의 축제와 국제음악축제에 참가하는 등 높은 명성을 얻고 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한국적 정서의 프로그래밍으로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며 유럽에서 실력과 지휘자로 인정받고 있는 강민석 씨(50세)가 지휘봉을 잡는다. 군 관계자는 "동서양의 음악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화려하고 박진감 넘치는 음악회가 될 것이다"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우수한 공연 유치로 수준 높은 문화공연 향유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³⁴⁾.

그림 44 국악인 장사익과 세바스토폴 교향악단 협연 공연 포스터(2013.7.2.), 해남



(출처: www.dailyjn.com)

³⁴⁾ <https://ru.wikipedia.org/wiki/%D0%9C%D0%B8%D1%88%D0%B8%D0%BD,%D0%90%D0%BB%D0%B5%D0%BA%D1%81%D0%B5%D0%B9,%D0%9D%D0%B8%D0%BA%D0%BE%D0%BB%D0%B0%D0%B5%D0%B2%D0%B8%D1%87> (검색일: 2019.04.11)

9. 참고 문헌

김용구, 『세계 외교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미디어와치(<http://www.mediawatch.kr>)
KIDA 세계분쟁 데이터베이스(<http://www.kida.re.kr>)
Kyivpost(<http://www.kyivpost.com>)
Ria Novosti(<http://www.ria.ru>)
Sevnews.info(<http://sevnews.info/>)
TheScienceTimes(<http://www.sciencetimes.co.kr>)
Большая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http://bse.sci-lib.com/article100495.html>)
Телеканал "РБК"(<http://www.rbc.ru>)
<http://sevkrimrus.narod.ru/texstes/vozvrat.htm#41>
러시아연방 통계청 세바스토폴 지부<http://sevastopol.gks.ru>
세바스토폴 시 정부<http://sevastopol.gov.ru>
세바스토폴 입법의회<http://sevzakon.ru>
우크라이나 통계청<http://ukrstat.gov.ua>

<사진 자료>

<http://krymology.info>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0987>
<http://www.hsnews.co.kr>
http://blog.daum.net/_blog/BlogTypeMain.do?blogid=0Akql
<http://sevribalka.com/>
<http://crimea-tour.ru>
<http://www.dailyjn.com>
<http://image4.fanpop.com>
<http://mecresentterg.kl.com.ua>
<http://www.wikipedia.org>